

이구월(李久月)이 나아간 아동문학의 길과 자리*

- 광복 이전의 작품 발굴을 중심으로 -

박 경 수**

차 례

- | | |
|-----------------------|------------------------|
| I. 들머리 | III. 이구월의 아동문학이 나아간 길과 |
| II. 이구월의 생애와 문학 활동의 면 | 자리 |
| 모 | IV. 마무리 |

국문초록

이 글은 이구월(李久月, 1904~?)의 생애를 가능한 대로 확인하고, 그가 남긴 문학작품들을 찾아서, 특히 광복 이전 그가 집중 추구했던 아동문학의 활동 면모와 작품 세계를 처음으로 밝히고자 한 것이다. 주요 논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구월은 필명이며, 본명은 이석봉(李錫鳳)이다. 1904년 마산에서 태어난 이구월은 1925년부터 김해보통학교 근무를 시작으로 교직에 종사했다. 1928년부터 1936년까지 통영보통학교에서 9년간 봉직하는 등

* 이 논문은 2013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안 문학 활동을 집중 펼쳤다. 광복 후에 동시집 『새봄』(1949)을 간행하고, 1962년까지 생존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그가 부산에서 사망했다고 하나 정확한 사망년도는 아직 알 수 없다.

둘째, 이구월이 남긴 문학작품으로 현재까지 필자가 찾은 작품은 시 20편, 동시·동요 72편(실제 발표 작품은 70편), 동화 4편, 수필·기타 7편으로 총 103편이다.

셋째, 이구월은 동시·동요, 동화 작품을 주로 쓴 아동문학가이다. 특히 동시·동요를 주로 창작했는데, 『조선일보』, 『중외일보』, 『동아일보』의 일간지 매체에 주로 작품을 발표하다가 『신소년』, 『별나라』로 매체를 옮기면서 프로아동문학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

넷째, 이구월의 동시·동요는 초기(1928~1929. 8), 중기(1929. 9~1933), 후기(1934~)로 구분될 수 있다. 초기의 동시·동요는 자연 현상과 자연적 대상들을 중요한 소재로 삼은 작품들로, 아이들의 동심을 밝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묘사한 작품들이 주류를 이룬다. 중기의 동시·동요 작품들은 프로아동문학 활동의 산물들이다. 그의 프로동요 작품들은 프롤레타리아동요집 『불별』(1931. 3)에 8명의 동인들 중 가장 많이 게재되었는데, 이들 7편의 작품을 통해 그 면모를 뚜렷이 파악할 수 있다. 이들 작품들은 아동들이 겪거나 보는 계급모순의 현실을 주로 부각시키는 작품들인데, 그렇다고 계급투쟁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지는 않았다. 후기의 작품들은 초기 동시·동요의 세계로 복귀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구월의 아동문학 활동은 거의 통영지역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는 당시 통영지역 문인들과 소통하기보다 프로아동문학의 길을 가면서 진주지역과 연고를 가진 이들을 비롯하여 전국의 프로아동문학을 추구했던 이들과 주로 소통하고 어울렸다.

주제어 : 아동문학, 동시, 동요, 이구월(李久月), 이석봉(李錫鳳), 프로아동문학, 불별, 신소년, 별나라, 통영지역 문학.

I. 들머리

이구월[李久月, 본명 이석봉(李錫鳳), 1904~?]¹)은 한국 근대 아동문학사는 물론이고 아동문학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단독으로 제 자리를 찾아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아동문학가이다. 그렇게 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아동문학을 중심으로 한 이구월의 문학 활동이, 본론에서 후술되겠지만, 일제강점기에 7년 정도 집중되었다가 이후 한동안 중단되었고, 해방기에 다시 반짝 활약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정에 이유도 있을 터이고, 그가 문학 활동을 펼친 자리가 통영지역으로 중앙문단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데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그가 한때 추구했던 아동문학의 길이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한 프로아동문학의 길이었다는 점도 오랫동안 그의 문학을 묵혀두게 했던 까닭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물론 이 외에도 그의 아동문학이 어느 정도의 문학적 역량을 보여주었는가의 문제도 관여될 수 있다.

이구월의 아동문학이 위와 같은 사정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문학을 비롯한 그의 문학 작품들을 일일이 찾는 작업을 통해 특별히 그의 문학을 거론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근대 이후 한국문학의 논의는 이제 서울의 중앙문단 중심으로 흐름을 재었던 태도에서 벗어나서 중앙과 지역문학과의 상호 길항 작용을 밝히는 가운데 문학활동의 판도를 전면적으로 재설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아동문학의 논의도 지역 아동문학의 면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펼쳐져야 한다. 이구월이 통영지역에 터를 두고 아동문학을 펼쳤지만, 그의 문학이 나아간 길은 통영지역을 넘어서 특히 부산경남지역 아동문학과의 연대와 소통을 통해 전국으로 뻗어 나아갔다. 그리고 그의 아동

1) 이구월(李久月)은 본명인 이석봉(李錫鳳)보다 필명으로 주로 작품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는 필명이 본명보다 더 잘 알려진 점을 고려하여 필명인 이구월로 쓰기로 한다.

문학이 일정 기간의 습작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당시 프로아동문학의 중심에 있으면서 다른 아동문학가들과 연대를 도모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그의 아동문학이 당시 아동문학의 일반적 경향을 추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점도 인정되고, 그의 문학작품이 특별히 우수한 문학적 성취를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당시 아동문학의 흐름과 추세를 좀 더 폭넓게 성찰하는 데 이구월의 아동문학은 분명 값진 기여를 할 수 있다.

이구월의 아동문학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제강점기 부산경남지역 아동문학의 작품을 발굴하여 그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논의가 박태일과 필자에 의해서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박태일은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어린이』, 『신소년』, 『별나라』, 『아희생활』을 살펴서 부산경남지역과 연고를 가진 아동문학인들의 문학활동 면모를 검토하면서, 이구월이 특히 『신소년』, 『별나라』에서 중요한 필진으로 활약했음을 밝힌 바 있다.²⁾ 박태일은 이 외에도 경남지역 계급주의 시문학의 흐름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이구월이 1920년대에 권환 · 이성홍 · 이주홍 · 엄홍섭 · 박석정 · 신고송 · 이원수 등에 이어서 김병호 · 손풍산 · 양우정 · 김성봉 등과 함께 지역 계급주의 시인들로 성장한 점을 주목해서 논의했으며,³⁾ 근대 통영지역 시문학의 전통을 검토하는 자리에서도 간략하지만 통영지역 시단을 이끄는 데 한몫을 했음을 지적⁴⁾한 바 있다. 필자 역시 부산경남지역 아동문학을 일간지 매체인 신문에 발표된 아동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이구월이 『중외일보』 · 『조선일보』 · 『동아일보』 등에 발표한 동시 · 동요⁵⁾와 동화 작품들을 논의하고,⁶⁾ 특히

2) 박태일, 「나라잃은시기 아동잡지를 통해서 본 경남 · 부산지역 아동문학」, 『한국문학논총』 제37집, 한국문학회, 2004, 149-200쪽.

3) 박태일, 「경남지역 계급주의 시문학 연구」, 『경남 · 부산지역문학 연구 I』, 청동거울, 2004, 21, 36, 48쪽.

4) 박태일, 「근대 통영지역 시문학의 전통」, 위의 책, 67쪽.

5) 일반적으로 규칙적 리듬의 유무에 따라 동요와 동시를 구분하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당대의 아동문학인들이 규칙적 리듬에 입각해서 쓴 작품과 노래를 전제로 창작한 작품을 ‘동요’라 인식했던 점을 드러내기 위해 별도로 동시와 구별

프롤레타리아동요집 『불별』을 발굴, 소개하는 자리에서 그의 동시 세계를 조명한 바 있다.⁷⁾ 부산경남지역 아동문학에 관심을 두고 논의를 펼친 이순욱, 한정호의 글에서도 이구월은 부분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⁸⁾ 그런데 이상 여러 논의는 부산경남지역 아동문학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판도를 고찰하는 글에서 이구월의 아동문학을 부분적으로 검토한 것에 그치며, 그의 문학 이력이나 활동을 전체적으로 살펴서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한 것이 아니다.

이 글은 이구월의 생애와 문학 이력을 가능한 대로 밝히면서, 그가 생전에 발표한 문학작품들을 폭넓게 찾아서 문학 활동의 면모를 복원하는 한편 그의 문학 중에서도 특히 광복 이전 아동문학이 나아간 길과 놓인 자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II. 이구월의 생애와 문학 활동의 면모

이구월(李久月)은 필명이며, 그의 본명은 이석봉(李錫鳳)이다. 『음악과 시』 창간호(1930. 8)의 「시인 소식(詩人 消息) 악인 소식(樂人 消息)」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하여 ‘동요’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둘을 함께 지칭할 때는 동시·동요로 병기한다. 동시와 동요의 구분은 규칙적 리듬의 유무가 아니라 가창의 여부에 따라 구별되어야 하고, 아동을 위한 시이든 아동이 직접 쓴 시이든 일단 동시로 보는 입장을 가진다.

- 6) 필자의 부산·경남지역 아동문학에 관한 일련의 논의는 다음 줄저에서 모아 재정리되었다. 박경수, 『아동문학의 도전과 지역 맥락 -부산·경남지역 아동문학의 재인식』, 국학자료원, 2010, 13~263쪽.
 - 7) 박경수, 「프롤레타리아동요집 『불별』과 부산경남지역 동시의 자리」, 위의 책, 283-285쪽.
 - 8) 이순욱, 「카프의 매체 투쟁과 프롤레타리아 동요집 『불별』」, 『한국문학논총』 제 37집, 한국문화회, 2004, 285쪽.
- 한정호, 「광복기 아동지와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위의 책, 258쪽.

◇ 久月 李錫鳳氏(詩樂)

- 一. 一九〇四年 慶南 馬山서 出生
- 一. 現住所 統營 新田 一〇三
- 一. 職은 畧

위의 기록은 『음악과 시』의 편집인 겸 발행인이었던 양우정이나 표지와 컷 그림을 담당했던 이주홍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음악과 시』의 필진으로 참여한 양우정, 이주홍, 신고송, 김병호 등 대부분이 경남지역에 터를 둔 시인들로 서로 교분이 있었던 이들로, 위의 「시인 소식 악인 소식」란에 기록된 출생과 현주소 등에 관한 기록은 모두 당사자의 확인을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출생년도의 경우 음력과 양력 또는 호적상의 나이와 실제 나이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한 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⁹⁾ 호적상의 기록과 가족이나 주변인의 증언 등을 통해 재확정될 필요가 있다. 현재 이구월의 호적과 후손을 파악하는 일이 과제로 있는 상황에서 일단 위의 기록대로 1904년 경남 마산에서 출생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위의 기록은 이구월이 1930년 8월 당시 통영 신전동(현 통영시 산양읍 신전동)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시와 음악에 모두 조예가 있었음을 알려 준다. 이구월은 1928년 이후부터 『조선일보』, 『중외일보』, 『동아일보』 등 일간지 매체를 통해 꾸준히 시와 동시·동요를 발표해 왔던 터이고, 당시에는 『신소년』과 『별나라』의 주요 필진으로 참여하면서 동요를 발

9) 「시인 소식 악인 소식」란에 김병호의 출생년도가 1906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이 직접 쓴 이력서에도 1906년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확인을 거쳐 출생년도를 기록했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김병호의 원적과 후손의 증언에 따르면 출생년도는 1904년이었다. 출생년도를 1906년으로 불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가 호적에 출생년도를 다시 올리는 과정에서 바로 잡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교직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에게 유리한 1906년을 출생년도로 이력서에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박경수, 『잊혀진 시인, 김병호의 시와 시세계』, 국학자료원, 2004, 197-199쪽.

표하고 있었다. 그가 음악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었음은 『음악과 시』 창간호에 올린 동요 <새 훗는 노래>, 같은 때 『신소년』(1930. 8)에 발표한 동요 <통수 소래>, 그리고 1931년의 일이지만 프롤레타리아동요집 『불별』에서 자신의 동요를 포함한 3편의 동요에 곡을 붙인 일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기록에서 이구월의 당시 직업은 생략되어 있으나,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결과, 이구월은 1925년부터 1927년까지 김해보통학교(현 김해동광초등학교), 1928년부터 1936년까지 9년간 통영보통학교(현 통영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1933년부터 1936년까지 통영심상고등소학교(현 통영초등학교에 통합) 강사를 겸했다가, 1937년에는 거제의 일본인 공립 소학교였던 지세포보통학교¹⁰⁾에서 1년간, 1938년에는 거제의 동부제이심상소학교(현 동부초등학교)의 개교에 따라 전근을 가서 2년간, 1940년에는 밀양의 하남대사심상소학교(현 하남대사초등학교)로 전근되는 등 1945년 광복 때까지 여러 학교를 전전했다.¹¹⁾ 1937년 이후 이구월의 교단생활이 순탄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구월이 당시 공립보통학교 교사로 있기까지의 학력 사항은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1925년부터 교사 생활을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당시 경상남도 공립 사범학교(이하 ‘경남공립사범학교’라 함)에서 1년 과정의 ‘강습과’나 2년 과정의 ‘특과’를 졸업한 후에 교사로 임용된 것으로 짐작된다.¹²⁾ 앞으로 이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10) 『동아일보』(1928. 7. 15)의 「도서순례」 중 ‘거제도 방면’ 기사에서 거제도에는 조선인이 다니는 공립보통학교가 3개인 반면, 일본인 공립 소학교가 7개나 있다고 하면서, 특히 일운면에는 구조라공립소학교와 지세포공립소학교 등 2개의 공립 소학교가 있다고 전하고 있다.

1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12) 경상남도 공립 사범학교는 1923년 3월 31일 인가를 받아 설립(조선총독부 고시 125호 인가)되었는데, 이때 1년 과정의 강습과(講習科)와 2년 과정의 특과(特科)가 개설되었다. 진주교육대학교발전사 편집위원회, 『진주교육대학교발전사(사범, 교대70년사)』, 진주교육대학교·진주교육대학교 동창회, 1994), 109쪽. 그런

이구월이 시와 동시·동요를 쓰기 시작했던 때는 통영보통학교에 근무하기 시작한 1928년부터이다. 김해보통학교 근무 때에는 문학 활동을 한 흔적은 없다. 다만, 김해여자청년회에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단기하 기여자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란 『중외일보』(1927. 7. 23)의 기사에서, 이 강좌의 강사 명단 중에서 이석봉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다. 강사 과목과 강사 명단의 순서로 보아 이구월이 ‘조선음악’에 관한 강좌를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구월의 음악에 대한 관심은 특히 동요의 창작으로 연결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1928년부터 통영보통학교에 근무하면서 이구월은 활발한 필력을 보인다. 다음 <표1>은 이구월이 1928년 이후 발표한 동시·동요 중에 필자가 찾은 작품 목록이다.

<표1> 이구월의 동시·동요 목록

순서	제 목	갈래명	필 명	게 재 지	발표연월일	비고
01	참새	동요	李久月	조선일보	1928. 4. 19	
02	지는 꽃넙	동요	李久月	조선일보	1928. 4. 28	
03	피리	동요	李久月	중외일보	1928. 5. 22	
04	소리개	동요	李久月	중외일보	1928. 5. 27	
05	참새	동요	李久月	중외일보	1928. 5. 28	
06	안개	동요	李久月	중외일보	1928. 6. 2	
07	밤	동요	李久月	중외일보	1928. 6. 4	
08	우리 할머니	동요	李久月	중외일보	1928. 6. 5	
09	던보	동요	李久月	중외일보	1928. 6. 10	
10	참새고리	동요	李久月	중외일보	1928. 6. 10	
11	꿈에 본 연	동요	李久月	중외일보	1928. 6. 14	

데 이구월이 이 학교의 1년 과정 강습과를 거쳤다면 1924년에 입학하여 1925년에 졸업했거나, 2년 과정의 특과에 입학했다면 1923년에 입학하여 1925년에 졸업했을 것이다. 이순욱이 『진주교육대학 동창회원 명부』(영남인쇄소, 1967)를 통해 김병호는 특과 1회(1925년 3월), 엄홍섭은 특과 2회(1926년 3월), 손풍산은 강습과 4회(1927년 3월) 졸업생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순욱, 앞의 글, 254쪽. 동창회원 명부에서 이석봉의 이름이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경남지역 공립 보통학교 교사 대부분이 경상남도 공립 사범학교를 거쳤다는 점에서 그렇다.

12	회우	동요	李久月	중외일보	1928. 6. 21	
13	구름	동요	李久月	중외일보	1928. 6. 23	
14	거무	동요	李久月	중외일보	1928. 6. 24	
15	병아리	동요	李久月	중외일보	1928. 6. 28	
16	원숭이	동요	李久月	중외일보	1928. 7. 1	
17	바람나무	동요	李久月	중외일보	1928. 7. 3	
18	외로운 참새	동요	李久月	중외일보	1928. 7. 7	
19	성양	동요	李久月	중외일보	1928. 7. 9	
20	싸랭이불	동요	李久月	중외일보	1928. 7. 12	
21	늑대와 어린양	동화시	李久月	중외일보	1928. 7. 15, 7. 18	2회 연재
22	개와 그림자	(동화시)	李久月	중외일보	1928. 7. 16	
23	소낙비	동요	李久月	중외일보	1928. 7. 16	
24	매암이 소리	동요	李久月	중외일보	1928. 7. 23	
25	아침 달	동요	李石峯	중외일보	1928. 7. 23	
26	잠자리	동요	李久月	중외일보	1928. 7. 28	
27	참깨고리	동요	李久月	신시대 1호	1928. 8. 1	진주: 신시단사
28	런쑏	동요	李久月	중외일보	1928. 8. 2	
29	달님 해님	동요	李久月	중외일보	1928. 8. 9	
30	早起會	동요	李久月	중외일보	1928. 8. 11	
31	앵도	동요	李久月	중외일보	1928. 8. 13	
32	야시벳	동요	李久月	중외일보	1928. 8. 20	
33	개암이	동요	久月	중외일보	1928. 8. 22	
34	반달	동요	李錫鳳	중외일보	1928. 8. 25	
35	짜리	동요	李久月	중외일보	1928. 8. 25	
36	나무넙	동요	李久月	조선일보	1928. 10. 6	
37	가을 산길	×	李久月	중외일보	1928. 11. 1	
38	락엽	동요	李久月	중외일보	1928. 11. 10	
39	들국화	×	李久月	중외일보	1928. 11. 17	
40	달밤	동요	李久月	중외일보	1929. 2. 12	
41	우리 兄弟	×	李錫鳳	중외일보	1929. 3. 18	
42	통소 소리	동요	李久月	중외일보	1929. 3. 29	
43	아버님! 어머니!	동시	李久月	조선일보	1929. 9. 1	
44	머레의 우름	동요	李久月	중외일보	1929. 10. 2	
45	나무넙	×	李久月	조선일보	1929. 11. 22	
46	내 동생	동요	李久月	조선일보	1930. 2. 9	
47	약갑	동요	李久月	동아일보	1930. 3. 16	
48	내 동생 새신	동요	李久月	동아일보	1930. 4. 4	
49	논 입자	동요	李久月	신소년 8:4	1930. 4	검열로 삭제
50	싸흙	동요	李久月	신소년 8:5	1930. 5	검열로 삭제

51	소작료	동요	李久月	신소년 8:5	1930. 5	
52	미워미워 영감보	동요	李久月	신소년 8:6	1930. 6	
53	큰비 나린 날	동요	李久月	소년세계	1930. 6	
54	조심하세요	동요	李久月	별나라 42호	1930. 7	불별 재수록
55	통수 소리	동요 (謠·曲)	李久月	신소년 8:8	1930. 8	
56	새 훔는 노래	동요 (謠·曲)	李久月	음악과 시 1호	1930. 8	불별 재수록
57	자동차 소리	동요	李久月	별나라 45호	1930. 10	불별 재수록
58	분한 밤	동요	李久月	별나라 46호	1930. 11	
59	집 직히는 소년들의 노래	동요	李久月	별나라 47호	1931. 2	
60	數々노래	동요	李久月	별나라 48호	1931. 3	
61	개떼	동요	李久月	불별	1931. 3	중앙인서관
62	어디 보자	동요	久月· 李錫鳳	불별	1931. 3	중앙인서관
63	증늬	동요	久月· 李錫鳳	불별	1931. 3	중앙인서관
64	우리집 형님	동요	李久月	신소년 9:5	1931. 5	
65	자장 노래	동요	李久月	별나라 50호	1931. 5	
66	참새	동요	李久月	별나라 52호	1931. 8	
67	별나라八週年紀念歌	동요	李久月	별나라 77호	1934. 9	趙光鎬 曲
68	두 아가	동요	李錫鳳	조선시단 8호	1934. 9	
69	아가 염소	동요	李錫鳳	조선시단 8호	1934. 9	
70	쌈을 내어라	동요	李錫鳳	새싹 8호	1948. 3	
71	설	동요	李錫鳳	새싹 10호	1949. 2	
72	요령 소리	동요	李錫鳳	새싹 14호	1949. 12	

필자가 찾은 이구월의 동시·동요 작품은 총 72편이다. 『신소년』, 『별나라』만 해도 찾지 못한 호수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동지의 추가 발굴과 확인 과정을 거친다면 그의 작품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광복 이전에 투고한 69편 중에 2편은 일제의 검열로 삭제되었으니 실제 발표된 작품은 67편이다. 광복 이후는 『새싹』지에서 현재까지 3편을 찾은 상태이다.¹³⁾ 이들 동시·동요만 해도 70편에 달하니 이구월은 결코

13) 광복기에 『새싹』지에 수록된 이구월의 동요와 동화에 대한 서지 사항은 한정호(경남대) 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표한다.

적지 않은 작품을 쓴 동시·동요 시인이었다. 이구월은 많지 않지만 4편의 동화(<표2>)를 쓰고, 성인시도 20편(<표3>)이나 발표했다. 수필·기타 작품도 7편(<표4>)이 찾아진다. 전체 작품을 합치면 103편이다. 차례대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2> 이구월의 동화 목록

순서	제 목	필 명	게 재 지	발표연월일	비고
01	햇님과 달님	李久月	조선일보	1928. 11. 20-11. 21	2회 연재
02	고양이와 쥐	李錫鳳	동아일보	1930. 3. 29-4. 1	4회 연재
03	두 마리의 말 ¹⁴⁾	李久月	중외일보	1931. 12. 25	1회
04	연탄장수	李錫鳳	새싹 10호	1928. 5. 27	

<표3> 이구월의 시 목록

순서	제 목	필 명	게 재 지	발표연월일	비고
01	삼월 삼짓날	李久月	조선일보	1928. 5. 4	
02	밀	李久月	중외일보	1928. 6. 18	민요
03	보리타작	李久月	중외일보	1928. 6. 29	
04	봉선화	李久月	중외일보	1928. 7. 4	민요
05	가지 마라	李久月	중외일보	1928. 7. 9	민요
06	새벽 노래	李久月	중외일보	1928. 7. 28	
07	村處女の 놀애	李錫鳳	중외일보	1928. 8. 22	민요
08	短詩數章 -리별	李錫鳳	중외일보	1929. 3. 13	
09	短詩數章 -생명	李錫鳳	중외일보	1929. 3. 13	
10	短詩數章 -갑싼 시름	李錫鳳	중외일보	1929. 3. 13	
11	短詩數章 -희망	李錫鳳	중외일보	1929. 3. 13	
12	멀지 안타	李錫鳳	중외일보	1929. 3. 26	
13	새벽	李久月	조선시단 5호	1929. 4	청년시인백인집(황석우 편, 조선시단사)
14	님 생각	李久月	조선시단 5호	1929. 4	상동
15	술의 시비	李久月	조선시단 5호	1929. 4	상동
16	오빠에게 드리나이다	李錫鳳	조선시단 5호	1929. 4	상동
17	夕陽漁村小景	李久月	문예공론 2호	1929. 6	‘入選詩集’
18	물결	李久月	조선일보	1929. 12. 6	

14) 원문에는 제목이 ‘두 머리의 말’이라 되어 있다. ‘마리’를 ‘머리’로 오식한 데 따른 오류로 보아 ‘두 마리의 말’로 바로 잡아 적었다.

19	脫夢序曲	李久月	조선시단 6호	1930. 1	
20	봄의 행진곡	李久月	중외일보	1930. 2. 22	

<표4> 이구월의 수필·기타 목록

순서	제 목	갈래	필 명	게 재 지	발표연월일	비고
01	路頭의 약장사	수필	李錫鳳	동아일보	1928. 5. 1	스케취: 春日街上所見
02	차멀미하는 아낙네	수필	李錫鳳	동아일보	1929. 3. 13	스케취: 車中所見
03	불난 밤	수필	李久月	신소년 8:8	1928. 6. 29	
04	여름방학지상좌담회	좌담	李久月	신소년 8:8	1928. 7. 4	
05	개고리의 생활은 엇더한가?	설명문	李久月	별나라 49호	1928. 7. 9	취미과학
06	이러한 날에도	수필	李久月	별나라 50호	1928. 7. 28	五月風景
07	바다와 파도	설명문	李錫鳳	별나라 51호	1928. 8. 22	(과학글)

이구월은 『조선일보』에 동요 <참새>(1928. 4. 19)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매체에 <지는 꽃잎>(1928. 4. 28), 시 <삼월 삼짇날>(1928. 5. 4)을 잇따라 발표했다가, 『중외일보』로 매체를 옮겨 1928년 5월 22일부터 1929년 3월 말까지 동시·동요(동화시 포함) 38편, 시(민요시 포함) 11편을 집중 발표했다. 이뿐만 아니라 『동아일보』에도 <노두(路頭)의 약장사>(1928. 5. 1), <차멀미 하는 아낙네>(1929. 3. 13)의 수필을 써서 투고하는 등 시, 동시·동요, 동화, 수필 등 여러 갈래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다양한 매체에 작품을 써서 투고하여 발표했다.

이구월은 이런 과정에서 진주에서 발간된 『신시단』 창간호(1928. 8)에 동요 <참깨고리>를 올리게 된다. 이 『신시단』에는 진우춘, 우이동인(본명 이학인), 엄홍섭, 김병호, 이찬, 리성묵, 소용수, 정태리, 민병휘 등이 시, 동요, 수필 등을 발표하고 있는데, 당시 진주지역과 연고가 있는 이들의 작품들이 상당한 비중으로 게재되었다. 강희근은 이 『신시단』이 김병호와 엄홍섭 두 사람의 안목에 의해 꾸려진 것으로 보았는데,¹⁵⁾ 이 점에 동의하면 경남공립사범학교 특과 선후배인 김병호와 엄홍섭이 이구

월에게 연락하여 동요를 받았을 것으로 본다. 1929년 들어 이구월은 일간지 매체에 투고하는 횟수를 크게 줄이는 대신 문학전문 월간지 매체를 통해 이름을 적극 알리는 쪽으로 선회한다. 『조선시단』 제5호(1929. 4)의 특집으로 발행한 황석우 편, 『청년시인백인집』에 시 <새벽> 등 4편을 한꺼번에 올리고, 『문예공론』 제2호(1929. 6)에도 양주동의 선고를 거쳐 시 <석양어촌소경(夕陽漁村小景)>을 발표한다. 통영의 이구월이 동시·동요와 성인시를 쓰는 시인으로 서서히 중앙문단으로 나아간 것이다.



△이구월(1930. 8) △ 신소년사에서 개최한 「여름지상좌담회」 참석자 사진 (1930. 8). 뒷줄 왼쪽부터 이구월, 손풍산, 늘샘(탁상수), 양우정, 이주홍, 엄홍섭, 앞줄 왼쪽부터 신고송, 김병호.

1930년에 들면서 이구월은 아동지 『신소년』과 『별나라』의 중요한 필진으로 참여하게 된다. 두 아동지에 거의 매월 동요를 발표하다시피 활발하게 동요를 발표했다. 이때는 그의 문학세계도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한 프로아동문학의 길로 이미 들어서 있었다. 김병호, 엄홍섭, 양우정, 신고송, 이주홍, 손풍산 등 경남지역과 연고를 가진 문학인들도 이구월과 비슷한 시기에 프로아동문학의 길로 나아가면서 서로 의기투합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각자의 동요를 모은 사화집을 프롤레타리아동

15) 강희근, 「진주문학의 흐름」, 『경남문학의 흐름』, 보고서, 2001, 115쪽.

요집 『불별』이란 이름으로 이듬해인 1931년 3월에 간행하게 된다.¹⁶⁾ 이구월은 이 『불별』에 8명의 동인들 중 가장 많은 동요 7편을 발표하고, 자신의 동요 <새 쫓는 노래> 외에 양우정의 동요 <망아지>와 신고송의 동요 <미력과 장승>을 작곡하는 등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구월은 1931년부터 『신소년』과 『별나라』에서 동요시인으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한다. 『별나라』 1931년 9월호에서 ‘전조선소년소녀현상대모집’을 광고하는 사고(社告)에서, 이구월은 손풍산, 엄홍섭, 김병호, 이주홍과 함께 선고(選稿) 선생으로 예고된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선고의 대상이었는데, 『불별』을 낸 이후부터는 이처럼 프로아동문학가로서 중심적인 위치를 인정받게 된 셈이다.



△『불별』(중앙인서관, 1931. 3) 표지 △『불별』 소재 이구월의 동요 <새 쫓는 노래>

그러나 이구월의 프로아동문학가로서의 활동 면모는 1931년 9월 이후부터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다. 이구월의 동요가 다시 발표된 1934년 9월 까지가 3년여의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그가 발표한 문학 작품은 『중의 일보』 1931년 12월 25일자에 발표한 <두 마리의 말>이란 짧은 동화가 전부이다. 이구월의 문학 활동이 중단된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불별』의 발간 등 프로아동문학 활동과 관련하여 일제의 강력한 압력과 탄

16) 『불별 -프로레타리아동요집』, 중앙인서관, 1931. 3.

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구월이 카프의 동맹원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일제의 카프에 대한 제1차 검거사건이 1931년 9월에 이루어지는 등 당시의 프로문학에 대한 탄압적 분위기는 생계를 위해 교직을 이어가야 했던 이구월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구월뿐만 아니라 『불별』의 동인 모두 1932년부터 『신소년』과 『별나라』에서 거의 손을 떼다시피 한다. 엄홍섭과 양우정은 이른바 ‘『군기』사건’¹⁷⁾을 겪고 카프 지도부와 멀어지게 되었고, 이주홍, 김병호, 신고송 등도 『신소년』과 『별나라』에서 모습을 감추게 된다.¹⁸⁾ 『불별』의 간행 이후 프로아동문학가로서의 위치는 한층 확고하게 되었지만, 『불별』 동인의 문학 활동은 오히려 많은 제약을 받았던 것이다.

『불별』 동인들은 1932년 이후 각자 살 길을 찾아 암중모색하거나 문학운동의 방향을 전환하는 기간을 보냈다. 이구월이 다시 펜을 들었던 때가 1934년 9월이다. 『별나라』(1934. 9)에 <별나라8주년기념가>를 작사 작곡한 것을 발표하고, 이전부터 인연을 맺었던 황석우 주간의 조선시단사에서 발행하는 『조선시단』 제8호(1934. 9)에 <두 아가>와 <아기 염소>의 동요 2편을 발표했다. 특히 동요 2편은 이전의 프로동요의 색채를 뺀 작품이었다. 그러나 이들 작품들도 ‘이석봉’의 이름을 잠시 알리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고, 광복 때까지 문학 창작에 관한 한 거의 절필 상태로 지내지 않았든가 한다.

광복 이후 이구월은 대구에서 아동교육을 위한 계몽지로 발행된 『새싹』지¹⁹⁾에 동요와 동화 등을 발표하면서 아동문학 활동을 재개한다. 일

17) 김용직, 『한국근대시사(하)』, 학연사, 1986, 147-154쪽.

18) 홍구는 「아동문학 작가의 프로필」(『신소년』, 1932. 8), 28-29쪽에서 “그러나 여기서 이처지지 않는(현재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 ……(중략)…… 「동심으로부터」라는 글로 한참 물의를 일으키든 신고송군, 동요작가인 이구월군, 신소년 편집으로 한참 재능을 보이든 이주홍군 동요작가이며 평론가인 김병호군 이분들은 지금은 조금도 활약을 안 하여준다.”고 적고 있다.

19) 이재철은 이 『새싹』지가 1946년 아동교육을 위한 문화운동의 매개체로 대구에

제강점기에 추구했던 프로아동문학의 색깔은 지워진 작품들이다. 이들 작품들을 포함하여 1949년에는 동시집 『새봄』을 한글문화보급회 경남지부에서 발행했다.²⁰⁾ 이 시집을 발행한 한글문화보급회는 1945년 9월에 조선어학회에서 문맹 퇴치를 위한 한글보급을 목적으로 서울에 본부를 두고 전국의 지방에 도지부, 군분회를 두었는데,²¹⁾ 이구월이 이 한글문화보급회의 경남지부에서 모종의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 동시집 『새봄』도 간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 한때 열성을 바쳤던 프로아동문학과는 확실하게 절연하고 교육자로서의 길을 가며 한글보급운동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구월의 광복 이후 행방에 대해 이주홍은 경남지역 문학의 흐름을 일별하는 글에서, “거제(巨濟)에는 구월(久月) 이석봉(李錫鳳)이 1930년 경(年頃)부터 동요(童謠)를 써 해방(解放) 후(後) 동요집(童謠集)까지 낸 적이 있으나 지금은 병마(病魔)와 싸우면서 완전히 붓을 쥐고 있고”²²⁾ 라고 적고 있다. 이구월이 마산, 김해, 통영, 거제, 밀양 등으로 지역을 옮겨 다녔지만, 그의 지역 연고를 거제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 특별하다.

서 발간된 아동지이며, 이 아동지가 발행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점차 아동문학가들의 문예작품으로 채우면서 순문예지의 성격을 띠었다고 했다. 이제철, 『한국 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362-363쪽. 해방기의 아동문학지를 우익적 성향과 좌익적 성향으로 편의상 구분하면, 『새싹』은 『소학생』, 『어린이』(복간호), 『소년』, 『아동』등과 함께 우익적 성향에 속한다. 좌익적 성향의 아동지로 『새동무』, 『별나라』(복간호), 『아동문학』, 『아동문화』등이 있었다. 김종현, 『동심의 발견과 해방기 동시문학』, 청동거울, 2008, 24쪽 참고.

20) 이구월, 『새봄』, 한글문화보급회 경남지부, 1949. 박태일은 이 동시집의 출판 사항을 각주에서 밝히고, 이구월이 이 시집을 빌려 전향 표시를 확실히 한 것으로 보았다. 박태일, 앞의 책(『경남·부산지역문학연구 I』), 48쪽. 필자는 이 시집을 보고자 전국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검색하는 등 백방으로 찾아보았으나 아직 이 시집을 소장하거나 가진 이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21) 박용규, 「해방 후 한글운동에서의 이극로의 위상」, 『동양학』 제45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9, 153-155쪽 참고.

22) 이주홍, 「문학」, 경상남도지 편찬위원회 편, 『경상남도지(중권)』, 청구출판사, 1963. 2, 1058쪽.

그렇지만 이 글은 1963년 초 이구월의 신변을 알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다. 박태일은 경남·부산의 시를 가려 뽑아 엮은 『두류산에서 낙동강에서』의 시인 해적이어서 이구월에 대해 “1928년부터 『신시단』, 『조선시단』들에 동시를 발표했다. 광복 뒤 동시집을 내었고, 부산 대청동에서 지병과 싸우다 돌아갔다.”²³⁾고 쓰고 있다. 이구월의 삶이 부산에서 마감되었음을 알려주지만, 언제 사망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으로 이구월의 후손 등 연고자를 찾아 그의 생몰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동시집 『새봄』에 수록된 작품들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그의 아동문학에 관한 논의는 생애와 관련된 보다 정확한 기록을 토대로 한층 다채롭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이구월의 아동문학이 나아간 길과 자리

이구월이 남긴 문학작품들 중에서 동시·동요, 동화로 묶이는 아동문학 작품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시와 수필·기타의 글들이 있지만, 그의 문학 본령은 아동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가 남긴 동화²⁴⁾ 작품이 4편밖에 되지 않는 한계도 있어서 여기서는 이구월의 동시·동요를 중심으로 그의 아동문학이 나아간 길과 함께 그의 아동문학이 놓인 자리의 의미와 의의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구월이 발표한 첫 동요 작품은 『조선일보』(1928. 4. 19)에 발표한 <참새>이다. 그의 동요가 어떤 지점에서 출발되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작품이다.

23) 박태일 엮음, 『두류산에서 낙동강에서 -가려뽑은 경남·부산의 시』,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457쪽.

24) 이구월이 남긴 동화 중 일제강점기에 발표한 3편의 동화에 대해서는 박경수, 앞의 책(『아동문학의 도전과 지역 맥락』), 96쪽, 161쪽, 218-219쪽에서 검토한 바 있다. 동화에 대한 논의는 이에 미룬다.

우리집 처마신테 집짓고사는
 두마리 참새는 오날아침에
 쓸압헤 나무가지 동그리안자
 보슬보슬 봄비에 마저가면서
 처마싹 둥근집을 바라보고요
 소근소근 의조케 안자잇서요
 나무님의 비방울 짜떡어가며
 싹둑싹둑 나를보며 안저잇서요

-〈참새〉 전문²⁵⁾

‘통영(統營) 이구월(李久月)’로 투고한 이 작품은 처마 끝에 두 마리의 참새가 봄비를 맞으며 뜰 앞의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모습을 정겹게 묘사하고 있다. 3음보의 리듬을 단조롭게 반복하고 있는 한계는 있으나, 두 마리의 참새 모습을 “소근소근 의조케 안자잇서요”, “싹둑싹둑 나를보며 안저잇서요”와 같이 의성어와 의태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인상적으로 잘 표현했다. 그의 시적 출발이 이처럼 자연에 대한 순수한 동심을 표현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구월의 동시·동요는 사회현실을 묘사하는 프로동시·동요로 나아가기 전에 이처럼 자연적 대상을 소재로 삼은 작품들이 많다. 그리고 이들 작품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세계관을 기초로 자연에 대한 순수한 동심을 노래하고 있다. 그의 동시·동요를 일별할 때, 1929년 9월 이후에 발표한 작품들이 아동이 겪는 사회현실을 소재로 한 프로동시·동요들인데, 그의 초기 동시·동요는 이들 작품들과 뚜렷이 구분된다. 그의 초기 동시·동요가 어떤 소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인물(2편) : 할머니, 형제.

동물(10편) : 참새(3편), 소리개, 참개구리(2편), 병아리, 원숭이, 늑대와 양, 개.

25) 『조선일보』(1928. 4. 19).

식물(7편) : 꽃잎, 바람나무, 앵두, 파리, 나뭇잎, 낙엽, 들국화.

곤충(5편) : 거미, 반딧불이, 매미, 잠자리, 개미.

사물·도구(5편) : 피리, 연, 전보, 성냥, 통소.

자연 현상(12편) : 안개, 밤, 구름, 비, 소나기, 달, 달과 해, 여우뿔, 반달, 가을 산길, 달밤.

생활·사건(1편) : 조기회.

이구월이 프로동시·동요에 앞서 발표한 작품들이 모두 42편인데, 위에서 보듯이, 자연 현상을 소재로 한 작품이 12편으로 가장 많고, 자연적 대상인 동물 소재의 작품이 10편, 식물 소재의 작품이 7편, 곤충 소재의 작품이 5편이다. 이들 작품을 합하면 모두 34편으로 81%에 달한다. 이에 비해 아동의 생활이나 사회생활과 연관된 사물·도구를 소재로 한 작품은 5편, 생활·사건과 관련된 작품은 1건에 불과하며,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들도 가족 관계에 한정된 2편뿐 사회적 관계의 인물을 제재로 한 작품은 없다. 이처럼 이구월의 초기 동시·동요가 자연적 대상이나 현상을 집중 취재한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그러면 이들 동시·동요 작품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떠한 시적 세계관을 토대로 형상화된 작품들인지 살펴보자. 우선 자연적 대상을 소재로 한 다음 두 작품을 보자.

①

까랑까랑

췌득췌득

보이다 안보이다

 까랑불 이상하다

 췌득불 참우서워

까랑까랑

췌득췌득

보이다 안보이다

-〈까랑이불〉 전문²⁶⁾

②

고음다리 고음다리
빙빙빙빙 돌아서는
붓든자리 이리온나
이쪽편이 시원하다
이쪽편이 놀기조타

-<잠자리> 전문²⁷⁾

위의 두 동요 작품은 어린이의 시선에서 관찰한 반딧불이와 잠자리를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다. ①의 <까랑이불>은 반딧불이의 반짝거리는 모습을 어떤 미사여구도 없이 “보이다 안보이다/까랑불 이상하다/뽀뽀불 참우서워”라고 표현함으로써 반딧불이에 대한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을 잘 포착하고 있다. 단순한 묘사의 작품이지만 감쌀 만한 작품이다. ②도 잠자리의 생태를 어린이의 동심으로 관찰한 작품이다. 어린이들이 잠자리를 잡기 위해 “잠자리 꿈꿈/먼데가면 죽는다/불은 자리 붙어라”²⁸⁾라고 부르는 전래동요의 시상을 적절하게 전환시켜 표현했다. 잠자리를 잡으려 하는 어린이의 동심이 전래동요에 못지않게 잘 표현되어 있다.

이상의 동시·동요 작품들은 시적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과 순수한 동심을 노래한 작품들이다. 이구월의 동시·동요 중에는 이와 같은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시적 화자의 정서가 이입된 작품이나 이와 반대로 냉정한 시선으로 시적 대상을 관찰하는 작품들도 있다. 이들 작품들에서 다음 단계의 동시·동요를 예감할 수 있다.

①

아침마다 즐거웁게

26) 『중의일보』(1928. 7. 12).

27) 『중의일보』(1928. 7. 28).

28) 합천에서 채록된 <잠자리요>이다. 임동권, 『한국민요집Ⅲ』, 집문당, 1975, 674쪽. 잠자리를 잡을 때 부르는 <잠자리요>는 지역마다 부르는 사설이 다양하다.

썰썰거리며
노래하든 참새썰는
어데노는가
비나리는 오늘아침
참새한마리
외롭게도 혼자안저
울고잇서요

동모엿서 그러케도
우는것인가
어머니가 엽다고는
그리우는가
비는점점 더오는데
가지안코
나무가지 혼자안저
작고웁니다

-〈외로운 참새〉 전문²⁹⁾

②

나뭇가지 참깨고리 안저잇서요
언듯보니 넙가테 몰으갯지요
무엇하고 안갯는고 가만히보니
압헤안진 파리를 야사보아요

눈알을 썸썸놀려가면서
파리압홀 한발두발 걸어가지요
풀—날어 뒤에가 안지니까는
실그먼이 쏘뒤로 돌아보아요

-〈참깨고리〉 전문³⁰⁾

29) 『중외일보』(1928. 7. 7).

30) 『신시단』 창간호(1928. 8).

위의 두 작품에서 소재가 된 참새와 참개구리는 다른 작품을 포함하여 각각 4회, 2회나 제재가 되었다. 그만큼 시인이 많은 관심을 두었던 시적 대상들이다. 먼저 ①에서 시적 화자는 나뭇가지에 혼자 앉아 있는 참새를 관찰하면서, 동무와 어머니가 없는 외로운 상황으로 참새의 처지를 노래하고 있다. 시적 대상인 참새에 대한 시적 화자의 동정적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앞서 살핀 <참새>에서 참새를 밝고 긍정적으로 묘사한 시각과는 많이 다르다. 그의 동시·동요가 향후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적 경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선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의 작품도 이런 점에서 주목된다. 나뭇가지에 앉아서 파리를 잡으려고 하는 참개구리의 행동과 모습을 미세하게 관찰하고 있다. 특히 “눈알을 씹먹 씹먹 놀다가면서/파리압흔 한발두발 걸어가지요”와 같은 묘사는 차분하면서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시적 대상에 대한 리얼리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참개구리와 파리의 관계는 계급적 관점에서 형상화된 것은 아니다. 다만, 향후 이구월의 동시·동요가 계급적 관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구월의 동시·동요를 1929년 9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때, 두 시기에 쓴 작품들이 분명한 대조를 보인다는 점을 ‘나뭇잎’을 공통 제재로 한 다음 두 작품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①

누른빛 쪼그라진 나무넙들이
찬바람에 냇물우로 몰려갑니다
엄마품에 고히고히 자라든넙들
꽃엷는 저바다로 흘러갑니다

봄바람 불어오고 냇물춤출새
넙새들은 귀엽게도 움도듯지요
버들피리 내가불고 나비춤출새
나무넙도 너울너울 즐겨했지요

-<나무넙> 전문³¹⁾

②

노랑노랑 쪼글쪼글 나무넙들은
빨가벗은 몸둥이로 가는곳어디
간밤의 왜바람에 집을뺏기고
갈길업서 거리거리 해매입니다

주린배 비틀비틀 나무넙들은
호호호호 손불며 가는곳어디
이길저길 대문집 배도못채고
잘곳업서 부억으로 몰녀깁니다

-<나무넙> 전문³²⁾

①과 ②의 동요는 『조선일보』에 각각 1928년 10월 6일과 1929년 11월 22일에 발표된 작품들로 1년여의 시차를 두고 있다. ①에서 “누른빛 쪼 그라진 나무넙들”로 시상을 전개했지만, 이후의 묘사는 나뭇잎의 현재적 상황이 아니라 “엄마품에 고히고히 자라든넙들”과 “봄바람이 불어오고 냇물쭈쭈쎄”의 과거 상황에 치중되어 있다. 시적 제재를 형상화하는 시각이 긍정적인 까닭에 나뭇잎-나비-버들피리-나로 연결되는 세계가 혼연일체의 동일성을 이루면서 서정적 조화를 구현한다. 이와 반면에 ②는 “노랑노랑 쪼글쪼글 나무넙들”의 현재적 상황에 묘사를 집중하면서 근본비교의 방법으로 의인법을 통해 인간의 현실을 비유하고 있다. 즉, 바람에 떨어진 나뭇잎들이 누군가로부터 집을 뺏기고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과 주린 배를 채우려고 유랑 결식하는 사람들의 현실로 비유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1년여의 시차를 두고 발표된, 동일한 소재의 두 작품은 이구월 동시·동요의 변화된 작품 세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31) 『조선일보』(1928. 10. 6).

32) 『조선일보』(1929. 11. 22).

이구월의 동시·동요는 1929년 후반기부터 순수한 동심을 노래하는 작품들에서 아이들의 사회의식을 고취하는 작품들로 변모하기 시작해서 1931년 8월 『별나라』에 발표한 <참새>까지 이른다. 이들 동시·동요 작품들의 전체적 면모를 살펴보기 위해 전기의 경우와 같이 일단 소재별로 구분해 보자.

인물(9편) :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 형님, 아기, 논 임자, 영감, 전선수
선공과 굴뚝청소부, 소년들, 중.

동물(3편) : 새, 참새, 개.

식물(1편) : 나뭇잎.

곤충(1편) : 벌레.

사물·도구(4편) : 신, 통소, 자동차, 숫자.

자연 현상(2편) : 비, 밤.

생활·사건(4편) : 약값, 싸움, 소작료, 학비.

이상에서 보듯이, 자연적 대상인 동물, 식물, 곤충을 소재로 한 작품들과 자연 현상과 관련된 작품들은 모두 합쳐 7편으로 전체의 29%에 그치고,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9편(38%)으로 가장 많으면서, 사물·도구와 생활·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각각 4편씩(전체 8편, 33%)으로 나타난다. 특히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들에서 가족 관계의 인물보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인물들이 더 많다. 전기 동시·동요가 사회적 관계의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이 전혀 없었던 점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사물·도구와 생활·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전기보다 늘어나는 한편, 이들 작품들이 모두 아이들의 어려운 생활이나 모순된 사회현실을 드러내는 작품들이라는 점에서도 뚜렷한 변화를 보여준다.

이구월의 프로동시·동요 중에서 첫 작품에 해당하는 동시 <아버님!! 어머니!!>을 보자. 드물게 ‘동시’란 갈래명이 붙은 작품이다.

아버님 어머니
탄식과 눈물을 바려주소서
헐벗고 배주리긴
우리뿐이 아니외다
예전에 잘 살든 일
이악하면 무어합니까
이 아들의 참된 마음
씩씩한 용기를
복도드며 채실해주소서
이 세상을 움죽일 용사는
미래 세상 애들일군
가난뱅이 아들 우리들이랍니다

-<아버님!! 어머니!!> 2연³³⁾

위의 동시는 기존의 동요 작품들과 달리 메시지 중심의 산문적 진술시(Statement Poetry)이다. ‘가난뱅이 아들 우리들’이 시적 화자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청자로 설정하여, 청자의 화자에 대한 이해를 부탁하는 한편 청자에 대한 화자 자신의 각성과 다짐을 진술하고 있다. 산문적 진술시인 만큼 시적 긴장은 풀어져 있다. 기존의 동시·동요 작품들에 비해 시적 성취의 측면에서 뒤떨어지는 작품이다. 그런데 이 시는 메시지 전달에 치중한 만큼 “헐벗고 배주린” 계급 모순의 현실을 각성하면서 미래의 세상을 위한 계급투쟁의 전위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토로하고 있다. 선전·선동을 위한 아지·프로동시에 해당하는 작품이라 하겠는데, 이 작품을 통해 시인이 계급적 각성을 분명히 하면서 프로아동문학가로 나아가기 위한 선언을 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구월이 추구한 프로동시·동요는 다양한 시 세계를 보여준다. 다음 작품을 보자.

33) 『조선일보』(1929. 9. 1).

쌀쌀한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이골저골에서 캐모은 나물
 오늘 아침 세 번째 한량 찻건만
 병든 엄마 약값은 옛랑이란다
 다섯 곱질 열닷새 또캐어야지
 엄마 국한그릇 못끄려드리고
 그때면 나물도 다쇠지안홀가
 -〈약값〉 전문³⁴⁾

위의 동시는 이야기를 담은 서술시(Narrative Petry) 작품이다. 병든 어머니를 위해 나물을 캐어 팔아서 약값을 마련하겠다는 어린 아이의 효성스런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지만, 궁핍한 현실 속에서 약값을 마련하려는 어린 아이의 힘겨운 노역에도 불구하고 타개하기 어려운 현실 모순을 암시하고 있다. 일찍이 동화시를 발표하고, 틈나는 대로 동화를 발표하기도 했던 이구월이 동화와 접점을 이루는 서술시를 통해 프로동요의 가능성을 시험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이 프로동요가 담은 이야기의 세계가 당시의 궁핍한 현실에 놓인 아이들의 처지를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가치를 지닌다.

이구월의 프로동시·동요는 『불별』에서 그 정점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³⁵⁾ 『불별』 동인 8명 중에서 가장 많은 7편의 동요를 발표한 이구월은 다른 동인들의 동요 작품들처럼 계급적 대립과 갈등을 형상화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계급적 대립과 갈등을 극단적 투쟁으로 몰아가기보다는 그것을 시적 화자의 자아 성찰과 극복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34) 『동아일보』(1930. 3. 16).

35) 『불별』에 수록된 이구월의 동요에 대해서는 필자가 앞서 논의한 바 있다. 박경수, 앞의 책(『아동문학의 도전과 지역 맥락 -부산·경남지역 아동문학의 재인식』), 283-285쪽. 이 글에서는 앞선 논의를 참고하되, 수정·보완을 통해 재구성했음을 밝혀둔다.

우리는논직히는 새잘훑는아히들
훑바람군호마쳐 석유통복소리
량팔을내흔들며 후이후이후이

우리는논직히는 말잘듣는아히들
아버님핏땀흘려 애태우며지은곡식
한조각도못주겠다 후이후이후이

-〈새 쫓는 노래〉 1, 2연³⁶⁾

위의 시는 전승동요로 불리는 〈새 쫓는 노래〉를 기반으로 창작된 동요시 작품이다. 부모가 애써 지은 곡식을 새가 와서 먹지 못하도록 새를 쫓으면서 불렀던 동요의 여음인 “후이후이후이”를 적절하게 넣으면서, 부모가 고생하며 지은 곡식인 만큼 이를 지키는 일도 노동으로서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말하고자 한 작품이다.

다음의 동시 〈어디 보자〉도 소작인의 처지에 있는 아버지와 그 주인의 대립적 구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그 모순의 타개를 시적 자아의 미래에 대한 다짐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울아버지 허리굽혀 인사를하면
모자도 아니벗고 눈알만껌벅
나만호신 울아버지 꾸러안저도
양반다리 건방지게 말조차노워

어디보자 내가크면 어디를 보자

피땀흘려 지은곡식 다빼서가며
그래도 세작다고 논뺏는다네
울아버진 성이엿나 귀운이엿나
논떼일까 참는다네 오직분하리

36) 『불별 -푸로레타리아동요집』, 중앙인서관, 1931. 3, 14쪽.

어디보자 내가크면 어디를보자.

-〈어디 보자〉 전문³⁷⁾

위의 동요는 소작권을 매개로 한 지주와 소작인의 계급적 갈등이 경제적인 모순을 넘어 인격적 비하와 굴종까지도 허용할 수밖에 없는 모순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시적 자이는 빈부의 경제적 차이에서부터 비롯된 인간적 모멸의 상황을 계급투쟁의 적극적인 방향에서 해소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적 화자는 “논떼일까 참는다 네 오직분하리”라고 했듯이, 계급적 갈등에서 빚어지는 인간적 모멸을 부득이한 상황으로 용인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러면서 “어디보자 내가크면 어디를 보자”라고 했듯이, 즉각적으로 계급투쟁을 하는 적극적 방법보다는 미래의 상황을 기약하는 점진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을 취한다. 이런 점에서 이구월의 프로동시·동요는 계급주의의 급진적인 투쟁보다 현실의 모순과 불합리를 부각시키는 데 치중한 작품들이다. 다음의 <조심하세요>도 같은 맥락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우리형님 지난겨을 굴뚝후비다
떠러져서 팔다리 병신땀서요
우리집 밥줄이 떠러졌서요

조심해요 떠러지면 어떠케해요

-〈조심하세요〉 일부³⁸⁾

위의 <조심하세요>는 계급적 관점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부잣집의 굴뚝을 청소하다 떨어져서 팔다리를 다친 형님에 대해 의도적으로 굵고 큰 활자로 형태화한 “조심해요 떠러지면 어떠케해요”라는 구절을 통해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계급 모

37) 위의 책(『불별』), 33쪽.

38) 위의 책(『불별』), 34쪽.

순이나 투쟁적 의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있지는 않다.

이구월의 프로동시·동요로 마지막 자리에 놓인 작품이 묘하게도 그의 첫 동시·동요인 <참새>와 동일한 제목을 보여준다.

건너집 장속에 참새가 들었네
아페와서 철그덕 뒤에가서 쿠ᄃᄃ
철사를 물어쥔다 머리를 찌는다
건너집 처마에 참새새 물넛네
마당에서 씹씹 씹 마루올나 씹씹
쫓차도 쫓온다 작구작구 더온다
-<참새> 전문³⁹⁾

참새떼가 몰려드는 ‘건너 집’은 작품의 문맥을 통해 부잣집으로 읽을 수 있다. 건너 부잣집에서 공간 장속에 곡식을 숨겨두고 있기 때문에 참새떼를 쫓아도 계속 모여든다는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건너집과 참새떼의 관계가 가진 자(부자)와 못가진 자(가난한 자)의 관계로 설정되고 그 계급적 모순을 비유적으로 말하고자 한 작품이다. 그의 첫 작품인 <참새>에서 “우리집 처마스टे 집짓고사는/두마리 참새”가 의중계 앞서서 속삭이고 있는 모습과는 크게 다르다. 시적 대상인 참새를 보는 시각이 그만큼 계급주의적 관점에 서 있는 셈이다. 그러나 위의 작품은 현실의 근본적 변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재하고 있지는 않다. 참새들이 아무리 철사를 물어 떼고 머리를 찌어도 결국 부잣집의 공간은 열리지 않고 희생되는 쪽은 오히려 약자인 참새들이기 때문이다. 이구월의 프로동시·동요가 나아간 지점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의 현실 변혁의 꿈이 오히려 모순이 심화되는 현실의 두꺼운 벽 앞에 좌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구월이 결국 다시 돌아간 동시·동요의 세계는 순수한 동심에 비취

39) 『별나라』 통권 52호(1931. 8).

본 자유롭고 행복한 삶의 세계이다. 일제강점기에 쓴 끝자락의 작품인 <아가 염소>를 보자.

엄마업는 아가염소 쌍둥이염소
엄매엄매 울음소리 가엽습니다

쌍둥이는 우리옴바 나는노랑이
들노들노 다리고 놀다웁니다

-<두 아가> 전문⁴⁰⁾

위의 동요에서 형상화된 쌍둥이 아기 염소들은 엄마가 없다는 조건에서 보면, ‘결핍’의 심각성을 안고 있는 존재들로 묘사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엄매엄매 울음소리 가엿습니다’고 하여 측은지심이 발동된 정도에 그치고, “들노들노 다리고 놀다웁니다”라고 하여 ‘우리 오빠’와 ‘나’의 행복하고 자유로운 상황을 부각시키는 데 묘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구월이 궁극적으로 꿈꾼 세계가 이와 같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새봄’의 세계가 아닐까 한다.

IV. 마무리

이 글은 그동안 아동문학의 논의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이구월(본명 이석봉)의 생애와 관련된 사항을 가능한 대로 찾아서 밝히는 한편, 그의 문학작품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 찾아서 특히 광복 이전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아동문학 활동과 그 작품 세계의 면모를 파악하고자 했다. 지금까지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구월의 본명은 이석봉(李錫鳳)으로, 본명보다 필명을 주로 사

40) 『조선시단』 제8호(1934. 9).

용해서 작품을 발표했다. 1904년 마산에서 태어났으며, 1925년부터 김해 보통학교 근무를 시작으로 교직에 종사했다. 1928년부터 1936년까지 통영보통학교에서 9년간 봉직하는 동안 문학 활동을 펼쳤다. 이후 거제, 밀양 등지의 학교를 전전했다. 광복 후에 동시집 『새봄』(1949)을 간행하고, 부산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망년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둘째, 이구월이 남긴 문학작품으로 현재까지 필자가 찾은 작품은 시 20편, 동시·동요 72편(실제 발표 작품은 70편), 동화 4편, 수필·기타 7편으로 총 103편이다. 추가 자료 조사를 통해 이구월의 문학작품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셋째, 이구월은 동시·동요, 동화 작품을 주로 아동문학가이다. 특히 동시·동요를 주로 창작했는데, 『조선일보』, 『중외일보』, 『동아일보』의 일간지 매체에 주로 작품을 발표하다가 『신소년』, 『별나라』로 매체를 옮기면서 프로아동문학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

넷째, 이구월의 동시·동요는 초기(1928~1929. 8), 중기(1929. 9~1933), 후기(1934~)로 구분될 수 있다. 초기의 동시·동요는 자연 현상과 자연적 대상들을 중요한 소재로 삼은 작품들로, 아이들의 동심을 밝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묘사한 작품들이 주류를 이룬다. 중기의 동시·작품들은 주로 프로아동문학 활동의 산물들로, 8명의 동인들이 엮은 프롤레타리아동요집 『불별』(1931. 3)을 통해 그 면모를 뚜렷이 파악할 수 있다. 이들 작품들은 계급모순의 현실을 주로 부각시키는 작품들인데, 그렇다고 계급투쟁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지는 않았다. 후기의 작품들은 초기의 동시·동요의 세계로 복귀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은 이구월의 아동문학 활동은 거의 통영지역에 터를 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그는 당시 통영지역 문인들과의 소통은 거의 보여주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통영지역에서 발간된 시조동인지 『참새』(1926. 8~1929. 1)는 물론 유치환 시인이 관계한 『토성』(1927), 『소제

부』(1930), 『생리』(1937)에도 전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구월은 통영에 있으면서 오히려 진주지역과 연고가 있는 문학인들 중 프로문학을 추구했던 이들과 주로 소통하고 어울렸다. 그의 아동문학이 통영지역에 터를 두고 있었으면서도 그 소통의 역역은 통영지역을 거의 벗어나 있었던 셈이다. 이 점이 이구월의 아동문학이 지역문학으로서 정체성을 뚜렷이 갖지 못하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구월은 사실 일제강점기 당시 아동문학의 일반적 흐름과 추세를 따라갔던 아동문학이다. 그리고 그의 아동문학 작품이 다른 이들에 비해 특별히 우수한 문학적 역량을 보여준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구월의 아동문학을 발굴하여 조명하는 까닭은 부산경남지역의 아동문학, 나아가서 일제강점기의 아동문학을 좀 더 폭넓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분명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광복기에 발행된 그의 동시집을 찾아내는 한편 그의 생애적 사실과 아동문학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일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KYOBOTO
교보문고

참고문헌

1. 자료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신소년』, 『별나라』, 『신시단』, 『조선시단』, 『문예공론』, 『소년세계』, 『음악과 시』, 『새싹』 등.
『불별 -프로레타리아동요집』, 중앙인서관, 1931. 3.
임동권, 『한국민요집Ⅲ』, 집문당, 1975, 674쪽.

2. 논저

강희근, 『경남문학의 흐름』, 보고사, 2001, 115쪽.
김용직, 『한국근대시사(하)』, 학연사, 1986, 147-154쪽.
김종현, 『동심의 발견과 해방기 동시문학』, 청동거울, 2008, 24쪽.
박경수, 『아동문학의 도전과 지역 맥락 -부산·경남지역 아동문학의 재인식』, 국학자료원, 2010, 13-263쪽.
박경수, 『잊혀진 시인, 김병호의 시와 시세계』, 국학자료원, 2004, 197-199쪽.
박용규, 「해방 후 한글운동에서의 이극로의 위상」, 『동양학』 제45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9, 153-155쪽.
박태일 엮음, 『두류산에서 낙동강에서 -가려뽑은 경남·부산의 시』, 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457쪽.
박태일, 『경남·부산지역문학 연구 I』, 청동거울, 2004, 21쪽, 36쪽, 48쪽, 67쪽.
박태일, 「나라잃은시기 아동잡지를 통해서 본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한국문학논총』 제37집, 한국문학회, 2004, 149-200쪽.
이순옥, 「카프의 매체 투쟁과 프롤레타리아 동요집 『불별』」, 『한국문학논총』 제37집, 한국문학회, 2004, 285쪽.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362-363쪽.

이주홍, 「문학」, 경상남도지 편찬위원회 편, 『경상남도지(중권)』, 청구출판사, 1963. 2, 1058쪽.

진주교육대학교발전사 편집위원회, 『진주교육대학교발전사(사범, 교대70년사)』, 진주교육대학교 · 진주교육대학교 동창회, 1994), 109쪽.

한정호, 「광복기 아동지와 경남 · 부산지역 아동문학」, 한국문학논총』 제37집, 한국문학회, 2004, 258쪽.

홍구, 「아동문학 작가의 프로필」, 『신소년』, 1932. 8, 28-29쪽.

3. 관련 사이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Abstract>

A Study on the World of Lee Gu-wol's works in inquiring into Children's Literature

- Focused on finding his life and literary works as
much as possible -

Park, Kyung-Su*

This is about the life and works of author Lee Gu-wol (1904 - unknown). I have researched his life as much as possible to find his literary works. This is the first research of Lee Gu-wol's and the world of his works in inquiring into children's literature. The summary of my major discussions are below.

First, Lee, Gu-wol is a pen name and his real name is Lee, Suk-bong. He was born in Masan in 1904 and he started to work as a teacher at Kimhae elementary school from 1925. Between 1928 to 1936 he focused on literary works while working at Tongyeong elementary school for 9 years. After liberation, he published 'Sae-bom'(the New Spring), a collection of children's poems (1949). It has been confirmed that he was still alive until 1962. It is believed that he passed away in Busan but no one knows when exactly.

Second, his literary works; So far I have found 20 poems, 72 children's poems and songs (actual released works are 70), 4 children's stories, 7 essays etc, a total of 103 works. His work will be added if more items are found.

*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rd, Lee, Gu-wol is a children's author whose main works involved children's poems, songs, and stories. His main works were children's poems and songs which were published in the Chosun Daily news, Jungweo Daily news, Donga Daily news. He started to write for the 'Sin-sonyun' (the New Boy), 'Byul-nara' (the Star Land) and became a professional children's author at this point.

Forth, his children's poems, songs are divided into early works (1928 - Aug. 1929), mid works (Sep. 1929 - 1933), and the later works (1934 - unknown) His early poems and songs are subject of natural phenomenon and objects and describe the purity of childhood in a bright and positive point of view. The mid works are the outcome of his professional children's literary work activities. His professional song works appeared the most among 8 fellow authors in proletarian children's song collections 'Bul-byul' (the Firing Star) (Mar. 1931), we can understand his aspects clearly throughout his 7works during this period. These works high light the class contradiction's that children experience or see but he did not express these struggles strongly. Later works show that he came back to the early poems and songs' world.

Lee Gu-wol's children's literary activities were in Tongyoung area. However he didn't communicate with any other authors in that area. As he was on the verge of becoming professional he only communicated with fellow professional authors and hung out with Jinju area fellow authors and national professional authors. This is the reason why we can't tie his work to only the Tongyoung area.

Key Words : Children's Literature, Children's Poem, Children's Song,

Lee Gu-wol, Lee Suk-bong, Proletarian Children's Literature, 'Bul-byul' (the Firing Star), 'Sin-sonyun' (the New Boy), 'Byul-nara' (the Star Land), Literature of Tongyoung area.

■ 논문접수 : 2013년 11월 15일

■ 심사완료 : 2013년 12월 12일

■ 게재확정 : 2013년 12월 16일

